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19년 봄 · 65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홍선대원군 기린 흉배, 국립중앙박물관

2019년 봄 ■ 65호

Contents

| | | |
|-----------|-------------------------|----|
| 기획/상상의 동물 | 용이 나르사 | 4 |
| | 가릉빈가를 찾아서 | 8 |
| | 상상과 이상 | 12 |
| 박물관 탐방 | 또 하나의 왕궁 -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 15 |
| 문화칼럼 | 세계화 시대의 한글 | 18 |
| 답사기 | 시칠리아, 지금 여기 그리움의 맨 처음 | 22 |
| 회원마당 | 함께 가는 길동무 | 26 |
| | 유목: 자유인의 業 | 29 |
| 박물관 소식 | 2019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계획 | 32 |
| 숨은 전시 | 나로 말하자면 | 33 |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 34 |

발행일 2019년 3월 6일 발행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기획 이재범 편집회원 강현자·계운애·김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신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龍 용이 나르 사



숙종명릉산릉도감 의례의 청룡

멀고 먼 옛날, 상상의 세계에 새로운 종의 동물이 나타났다.
낙타 머리에 사슴뿔, 뱀몸뚱이에 물고기 비늘, 호랑이 발에 독수리 발톱…….
옛사람들은 들짐승, 물짐승, 날짐승의 강점을 모으고 또 모았다. 용의 탄생이다.

수신水神

용은 물에 살며, 물을 지키고 비를 관장한다. 물은 살포시 맺힌 이슬에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성난 파도까지, 대지를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용은 변화무쌍한 물의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다. 본성이 거칠고 맹렬하며 천변만화한다.

몸의 색은 오색五色을 마음대로 하며, 능히 어둡거나 밝을 수 있고, 가늘거나 커질 수 있다.

무궁무진한 조화를 부리는 용은 신격화된다. 국가적 차원의 용신제, 용왕제를 지내 풍작과 풍어를 빌었다. 경기도의 용지龍池와 용두산龍頭山, 충청도의 용연龍淵, 황해도의 용정龍井, 경상도의 용수암龍水巖 등 전국에 걸쳐 용에게 제를 올린 기우처祈雨處가 다수 분포한다.

1997년에 경희루의 연못에서는 길이 146.5cm, 무게 66.5kg의 청동용이 출토되었다. 근정전의 종도리에서는 용이 그려진 진홍종이, ‘龍’을 1000번 써 ‘水’자를 메운 부적이 나왔다. ‘하늘의 재주로 사람을 키우고, 물의 기운을 머금어 궁궐을 보호하소서……’, 청동용의 고사제문은 물을 다스려 불을 제압하는 용의 막중한 책임을 말한다.

사신四神

삼국시대의 용은 백호, 주작, 현무와 함께였다. 음양조화와 벽사를 뜻하는 신령스러운 네 동물은 네 방향과 짝을 이루고 각 방향의 수호신이 되었다. 동방에 배속된 용은 청룡이 되어 방위신方位神의 역할을 맡고 있다. 사신은 고분벽화나 부대의 깃발같이 동서남북 방위를 지

닌 공간과 기물을 장식한다. 특히 동(좌)청룡·서(우)백호는 풍수지리상 명당의 조건과 인재를 등용하고 배치할 때의 전략으로 널리 쓰인다.

호법신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용의 상징성에는 불교적인 성격이 포함된다. 원래 고대 인도 신화의 용은 뱀이나 코브라의 형상인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될 때 중국식 도상을 따르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불교의 건축, 조각, 공예, 회화에 등장하는 용은 천왕팔부중의 하나로 호법의 임무를 수행중이다. 사찰의 이곳저곳 눈길 닿는 곳마다 청동, 돌, 종이, 나무 재질의 크고 작은 용이 자리한다. 이중 법당 기둥머리와 계단 소맷돌의 용두는 사바세계에서 피안의 극락정토로 건널 때 타는 배, 반야용선의 선수를 나타낸다.

금광사金光寺, 망해사望海寺, 해룡사, 천룡사, 황룡사 등 많은 사찰의 연기 설화는 용과 관계된다. 해룡이 되어 불교와 국가를 지키겠다고 유언을 남긴 문무왕은 호법신이자 호국신의 자리에 오른 용의 높아진 위상을 잘 보여준다.

불교세계에서 용의 등장은 부처의 탄생 때부터였다. 설화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아홉 마리 용이 물을 뿜어 내어 석가모니를 씻어 주었다고 한다. 지혜와 덕망이 높은 고승을 용상龍象, 법력은 용상지력이라 하고, 불상을 모신 감실을 용감龍龕, 부처의 설법을 법보의 다른 이름인 용장龍藏이라 하니, 용은 승려를 거쳐 부처에 비유되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청자 어룡 모양 향로, 국립중앙박물관

권위와 위엄

치수治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농경사회의 용은 수중세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제왕의 지위에 오른다. 임금의 얼굴은 용안, 앉는 자리는 용좌, 의복은 용포, 수레는 용가며, 심지어 눈물은 용루였다. 임금의 즉위는 용비龍飛였으니, 세종 때 만들어진 선조先祖의 행적과 공덕을 찬양하는 한글 서사시 <용비어천가>를 바로 떠올리게 한다.

경복궁의 교태전, 강녕전 같은 침전에는 여느 전각과 달리 용마루가 없다. ‘한 못에는 두 마리 용이 살 수 없다.’, 속담이 그리된 까닭을 밝힌다.

용은 건국설화와 탄생설화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석탈해는 용성국龍城國 왕의 소생이고 박혁거세의 부인인 알영은 계룡鷄龍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고려 태조 왕건은 서해 용녀의 소생인 용건의 아들이고, 백제 무왕인 서동, 후백제 시조 견훤, 창녕 조씨의 시조 조제룡 역시 용의 후손이다.

어변성룡魚變成龍

장원급제한 자를 용두龍頭, 용수龍首라 하여, 출중한 인물 역시 용과 동급으로 대우했다. 입신출세의 관문을 뜻하는 등용문에서 알 수 있듯, 용의 비상을 상서롭게 여겼다. 하늘로 오르는 용은 만사형통도 의미하니 선비의 문방구와 사랑방을 장식하는 그림에는 유독 용 문양이 많았다.

권력층에게는 주로 권위와 입신의 상징이었던 용이 민간에서는 벽사와 기복의 의미였다. 우물이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터주신이나 토지신과 함께 용왕신을 모셨다. 호랑이와 함께 서수瑞獸였기에 입춘방으로 ‘龍’, ‘虎’ 두 글자를 크게 써 붙였다. 동해용의 아들 처용이 노래와 춤을 추어서 역신을 물리친 후, 처용의 화상畫像을 문에 붙여 사기를 물리치고 경사스러움을 맞이했던 풍습과 일맥상통한다. 조선후기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대문에 붙이는 세화에 용 그림이 성행했다.



용준, 국립고궁박물관

용생구지龍生九子

전설에는 용이 구름 속에서 학과 연애하여 봉황을 낳고, 땅에서는 빈마批馬와 결합하여 기린을 낳는다고 한다. 태평한 시대에 나타난다는 신령스러운 두 동물 말고도 자손이 더 있다. 연기와 불을 좋아해서 향로에 앉은 사자모양의 산예, 큰 소리로 울기를 잘해서 범종에 오른 포뢰와 무거운 것을 지기 좋아해서 비석받침이 된 비희 등 개성 강한 아들들이 무려 아홉이다. 자식농사에서 대풍을 거둔다.

생생활활生生活活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최상의 동물, 용. 옛사람들의 일상에서 용과 무관한 것은 없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깊고 넓었다. 민속, 민간신앙, 설화, 미술품, 지명에 이르기까지 다양각색의 모습을 전방위로 드러냈다. 음양오행설과 풍수지리설, 불교적 종교 코드와 유교의 왕도 등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상징성을 지녔다. 과학은 말했다. 용오름은 바다에서의 회오리 현상으로 하늘로 치솟은 물기둥이다. 그리고 구름에 숨은 용처럼 보인 것은 순간적인 번개 현상이다.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용의 실체를 하나둘 밝혀낸 지 오래다. 그럼에도 과학 세계의 진리와는 별개인 독자적인 영역에서 변함없는 가치를 지닌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사는 문화적 존재로서 실재하는 동물처럼 친근하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속담의 변용을 통해 달라진 시대적 상황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횡재수로 풀이하는 돼지꿈과 더불어 길몽의 쌍벽인 용꿈을 빌려서, 또한 십이지에서 유일한 상상의 동물로 당당히 용띠 자리를 차지하며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 머문다.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하게 영생을 누리고 있다. 🐉

문정원 회원



수덕사 대웅전 보



금동 널 꾸미개, 국립중앙박물관



동물 토우, 국립중앙박물관



흥법사 진공대사 탑, 부분

가릉빈가를 찾아서



산치 대탑 문 기둥, 부분

가릉빈가를 아시나요? 알 속에서 나오기 전에도 울음소리를 낸다는 새인데요. 자태가 매우 아름답고 그 무엇도 흉내 낼 수 없는 미묘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소리가 아름답고 미묘하여 묘음조, 호음조, 미음조라고도 불린답니다. 이름만큼이나 묘한 매력을 불러오네요. 가릉빈가를 찾아가 볼까요?

여기가 어디죠? 커다란 반구형의 돔이 앞에 있네요.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 있는 산치 대탑이군요. 세계 최초의 불탑으로, 오늘날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인도 전역을 최초로 통일한 아소카왕이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세운 탑입니다. 제1스투파에는 4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문마다 아름다운 조각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탑의 출입문으로 가볼까요? 문의 부분 부분에 인두조신이 보입니다. 쌍으로 조각되어 있는 가릉빈가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인데, 새의 날개와 꼬리가 있

는 가릉빈가가 공양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가릉빈가는 극락에 깃들여 산다고 하여 극락조라 부르기도 하고, 인도의 히말라야 산기슭에 산다는 불불조로 불리는 공작의 일종이라고도 합니다. 서역에 등장한 신비스러운 이 새를 따라가 봅시다.

가릉빈가는 산치 대탑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고구려로 날아옵니다. 평안남도 강서에 있는 덕흥리 고분. 두 칸의 방으로 되어 있는 무덤의 앞 칸으로 들어가 봅시다. 4면의 벽과 천장에 풍부한 내용의 벽화가 빼곡히 그려져 있네요. 사방 벽면에는 주인공 생전의 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군요. 유주자사의 관직을 지낸 진이라는 사람이 무덤의 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408년에 축조하였다는 확실한 연대를 알려주는 명문도 있습니다. 궁륭식 천장에는 천상세계를 나타내는 기이하고 상서로운 상상의 존재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고 질주하는 수렵도, 견우를 떠나보내는 직녀, 빨 달린 짐승의 얼굴에 새의 몸통을 가진 부귀富貴, 날개 달린 물고기,

머리가 돌인 새, 북두칠성 등이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네요. 서벽 천장에는 옥녀, 선인, 두꺼비가 있는 달,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새 모양의 인면조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가릉빈가입니다. 이 새의 그림 바로 옆에 만세지상萬歲之像이란 명문이 있는데, 만세는 수명이 만 년을 살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불사조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머리 모양에 새의 깃털이 달린 화관을 쓰고 봉황의 날개를 펴고 막 날려는 자세를 하고 있군요. 고고한 자태로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오묘한 춤사위처럼 느껴집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가릉빈가를 음악의 신, 또는 음악을 창시한 신으로 믿었다고 하는데, 이 춤사위에서 나오는 음악의 향연이 느껴지나요? 경전에 의하면 가릉빈가의 소리는 극히 신묘하여 하늘과 사람과 음악의 신도 흉내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전해오는군요. 그토록 신비스러운 소리를 지닌 가릉빈가가 이 무덤의 천장에서 무덤 주인공을 위해 장생불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릉빈가무늬 수막새, 국립중앙박물관



가릉빈가무늬 수막새, 유금와당박물관



가릉빈가무늬 수막새, 유금와당박물관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가릉빈가



구례 연곡사 동 승탑 가릉빈가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가릉빈가

가릉빈가의 소리가 시방세계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여 이끌려 온 곳이 통일신라입니다. 가릉빈가가 기와 지붕의 처마 끝으로 날아와 앉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궁궐과 사원 등을 새로 지으면서 기와 제작이 급속히 발전하여, 와당문화가 이때 꽃을 피웁니다. 이 시기에 조성된 경주의 왕궁 터 월성과 안압지의 막새기 외에 가릉빈가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아름다운 자태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팔 등 상체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머리에는 새의 깃털이 달린 화관을 쓰고, 양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형상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듯합니다. 경주 포석정 수막새의 가릉빈가는 정면을 향해 서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군요. 경주 보문사지 수막새의 가릉빈가는 머리에 특이한 초화형草花形 화관을 엮고 정면을 향해 연화좌에 서 있습니다. 반좌향한 자세로 날아오를 듯 화려한 춤사위를 자랑하고 있는 경주 안압지 수막새의 가릉빈가는 사람 얼굴의 머리에 작은 새의 날개 모양 화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 가릉빈가의 묘한 소리가 울려 나오는 듯합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승탑에서도 가릉빈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승탑에 날아든 가릉빈가를 만나러 갈까요?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이 탑들의 킴돌 8면에서 각기 다른 동작으로 장고, 피리, 생황, 비파 같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가릉빈가를 볼 수 있습니다. 8면의 다양한 모습은 마치 가릉빈가의 춤사위를 표현한 듯 울동감이 느껴집니다. 저마다 다른 악기를 들고 날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듯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소리의 높낮이와 곡조의 조화가 미묘하여 환희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가릉빈가의 소리를 춤으로 묘사한 듯합니다.

고려의 승탑에서도 가릉빈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례 연곡사 동 승탑과 북 승탑의 안상무늬 안에 새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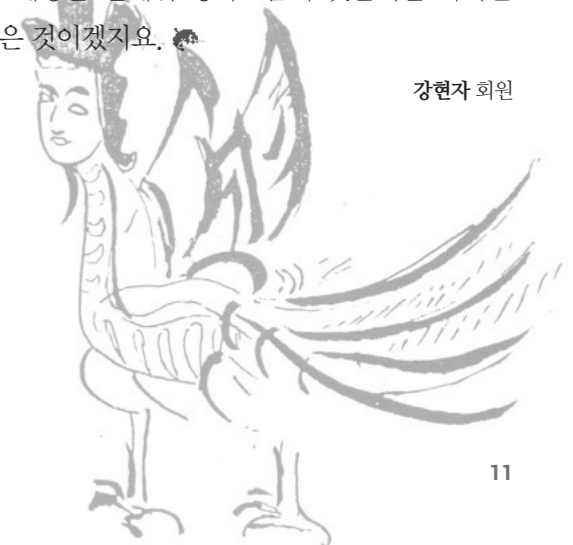
영천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 가릉빈가

8면의 가릉빈가는 활짝 펼쳐진 날개의 아름다운 자태에서 날갯짓이 느껴집니다. 생황을 불거나 피리,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이 환상적입니다.

경전에는 가릉빈가의 소리를 부처만이 낼 수 있는 범음의 소리에 비유하여, 범음을 널리 퍼기 위해 화현한 새라고도 합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늘 가운데 으뜸이라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여 맑고 오묘한 도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영천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의 가릉빈가 또한 그러한 상징을 보여줍니다. 이 수미단은 전면과 좌우 측면이 초현실적이고 신비스러운 문양들로 가득 차 있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조각기법이 뛰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단으로 손꼽힙니다. 그 불단 좌측면에서 천의를 어깨 위로 휘날리며 화려한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나는 듯한 가릉빈가를 볼 수 있습니다. 조각 솜씨가 매우 정교하고 모습 또한 환상적입니다. 악기 대신 연잎 위에 복숭아 두 개를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롭습니다.

이렇듯 가릉빈가는 천상의 아름다운 춤과 노래를 지상에 선물하였는데요. 그것을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제 가릉빈가는 2018년으로 날아옵니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 사람 얼굴에 흰색의 몸을 하고 날개를 펼치며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고구려 덕흥리 고분 벽화에 있는 인면조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기상과 상서로움을 기원한 듯합니다. 가릉빈가는 연주, 춤, 노래로 시방세계 어느 곳이나 출현하여 상서롭고 경사스러움을 전하는 길조로, 길조가 나타나면 천하가 태평하다는 동양의 상서관념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가릉빈가의 청정 미묘한 소리가 온 세상을 일깨워 평화로움이 깃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겠지요.

강현자 회원



상상과 이상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격’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의 출처는 한비자에 나오는 ‘위호부의爲虎傳翼’ 또는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위호침익爲虎添翼’인데 원전에선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다가 후대로 전해지면서 “이미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에 더 강력한 힘을 더한다.”는 뜻으로 전용되었다. 한반도에 호랑이만큼 강한 동물이 없었는데 그런 것이 날아다니기까지 한다면 그 모습은 얼마나 강력하고 공포스러울까.

날개는 생물이 날 수 있게 하는 신체기관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일종의 권능의 상징처럼 쓰여왔다.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날 수 없다. 태생부터 날 수 있는 새는 여러 문화권에서 천상과 지상의 매개체로서 숭배받아왔다. 서양회화에 묘사된 천사는 등에 날개가 붙어 있다. 하지만 설마 천사 정도 되는 존재가 꼭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을까? 날개가 있으면 저 하늘 멀리부터 날개를 펼럭거리면서 지상까지 와야 하는가? 이 또한 상징인 듯하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가수스같이 날개 달린 말도 있었다. 나중에 저 하늘에 올라 별까지 된 천마이지만 말이라서 그런가 영웅을 태우고 펼럭거리면서 날아다녔다.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국립경주박물관



조경 해치 흉배, 서울역사박물관

흥선대원군 기린 흉배, 국립중앙박물관

우리에게도 천마가 있다. 박혁거세나 아기장수 전설 등 여러 옛날이야기에 천마가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천마도를 보자. 근데 천마라면서 날개가 없다. 세월이 지나서 퇴색되었을까? 적외선 사진을 보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빨은 보여도 날개 같은 것은 없다. 어떤 근거로 평범한 가축이 아닌 천마라는 것인가? 바로 구름이다. 주변에 구름만 그려놓으면 날개같이 해부학적으로 거추장스러운 것을 안 붙여도 하늘을 나는 신령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니 동아시아 문화에서 나타나는 네발 달린 신령한 동물들 중에 날개 달린 것이 많지 않다. 네발 동물뿐 아니라 용에 대응되는 서양의 드래곤은 날갯짓을 해야 날 수 있는데 우리의 용은 날개도 없이 구름 사이로 잘만 날아다닌다.

그런데 십여 년 전부터 천마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다. 앞서 말한 적외선 사진에서 발견된 머리의 빨 때문에 말이 아니라 기린麒麟이라는 주장이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기神氣와 뒷다리에선 뿜쳐 나온 갈기도 기린이나

용 같은 신수神獸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천마총은 기린총이 되어야 하나? 물론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천마총으로 부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말이라는 쪽에 한 표 던지고 싶다. 막연하게 천마도는 진흙 등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마구인 말다래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니 기린보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말에게 산양처럼 커다란 빨을 단 채로 순장하여 주인을 저 세상으로 인도하게 한 카자흐스탄의 말 장식을 보고 나니 천마의 빨도 이들과 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빨 또한 날개처럼 힘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니 말이다.

기린은 천마처럼 실존하는 동물이 날아다닌다는 속성을 더 가진 것이 아니라 한 몸에 여러 동물의 특징을 지닌 신수이다. 사슴의 몸, 소의 꼬리, 말의 발굽을 가졌는데, 수컷은 기麒, 암컷은 린麟이라고 한다. 수컷은 빨이 없고 암컷에게는 이마에 빨이 하나 있는데 그나마도 빨에 살이 덮여 있어서 다른 생물을 해할 수 없다고 한다. 어찌

나 온순한지 새로 난 풀 위로 걸어 다니지도 않고 생채 소도 먹지 않을 정도이다. 존재 자체가 평화의 상징이니 만큼 현자나 성군의 탄생과 죽음을 상징한다.

조선 전기에 대군의 흉배에는 기린을, 대사헌의 흉배에는 정확하게 시비를 가려 법法이라는 글자의 근원이 된 신수인 해태를 새겼다. 흥선대원군은 흉배에 대군의 예를 따라 기린을 썼다. 그의 흉배에는 구름이 꼭 차 있고, 아랫부분에는 물결이 일렁대고 파도가 솟구치는데 기린이 구름 사이에서 날아다니고 있다. 기록에 묘사되지 않은 부분은 용의 모습에서 차용하여 빨 두 개와 수염이 달린 용머리에 갈기와 비늘까지 갖추었다. 왕과 왕비만이 쓸 자격이 있었던 찬란한 금실로 수놓은 흉배는 국왕의 생존해 있는 부친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 같다. 그의 시대가 흉배에 묘사된 것처럼 기린이 뛰어놀 수 있는 태평성대였다면, 그리고 해태같이 정의로운 관리들이 등용되어 뜻을 펼치는 때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경복궁 자경전 굴뚝 불가사리

태평성대에 기린이나 해태와 같은 신수가 나타나는 것에 반해 혼란한 시기에 출몰한 괴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 바로 불가사리 전승이다. 민간 구전설화인 만큼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전해지는데 대부분 누군가가 밥알로 만든 불가사리라는 인형을 선물 받아 키우면서 시작된다. 쇠를 먹고 자란 불가사리는 괴물이 되어 쇠붙이를 보는 대로 집어삼키면서 날뛰지만 관군은 속수무책. 주인 또는 선물해준 사람이 나타나 의외로 간단하게 불가사리를 퇴치한다. 오랑캐나 해적들의 무기를 먹어 치워서 사람들을 돕는 전승도 있다고 한다. ‘송도松都 말년에 불가사리’라는 표현으로 볼 때 고려 말의 혼란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한다. 고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있을 때 이 전승을 차용하여 제작한 <불가사리>라는 영화에서 이 괴수는 고려 말에 수탈당하며 신음하던 백성들을 혁명으로 이끌고 장렬히 스러진다. 문득 불가사리는 잔혹한 위정자들에게 괴수, 민초들에게는 자신들의 염원이 담긴 영수靈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세월이 흘러 조선 후기 민화에 등장하는 불가사리의 모습은 설화와는 다르게 친근한 모습이다. 경복궁 자경전 굴뚝에도 불가사리가 벽사의 역할을 하도록 새겨져 있다. 책거리 그림에 등장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로 변형된 전승들처럼 그림 속 모습도 각기 다르다. 말 그대로 화가의 상상의 산물이다.

상상의 동물이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소망들을 대변하며, 추구하는 이상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도 과거의 상상의 동물들이 여러 창작물에 사용되면서 모습과 의미가 변형되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상상의 동물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먼 미래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상상의 동물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했다고 생각하게 될까? 🐉

서유미 회원

또 하나의 왕궁

—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옛 절터라니 잡목이 우거진 공터를 보게 되리라 했습니다. 웬걸요, 지레짐작은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한눈에 다 담기지 않는 널디 너른 터는 평지도 경사지도 아닙니다. 그 옛날, 계곡을 흙으로 메우고 석축을 쌓아 계단식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기다랗게 이어지고 차곡차곡 쌓여진 석재들은 장관이었습니다. 말끔하고 번듯한 모습이 이제 막 터다지기를 끝내고 대공사를 시작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양주 천보산天寶山 자락의 회암사지, 첫인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회암사지 발굴의 성과물은 2012년 개관한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문헌 속 사찰 기록과 한국불교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세 승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회암사의 창건은 12세기 후반 이전으로 추정합니다. 고려에 온 인도 승려 지공선사의 뜻을 따라서 1376년에는 그의 제자인 나용선사가 중창하였고, 1472년에는 세조비 정희왕후가 중창하였습니다.

한창때에는 총 262칸에 이르는 전각들과 17개 암자가 있었고, 모셔진 불상도 15척 크기가 7구, 관음상도 10척이나 될 정도로 크고 웅장하며 빼어나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쌀을 씻는 함지박에 사람이 빠지고, 전국의 승려들이 너도나도 회암사에서 왔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증명하려는 듯 많은 유구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대형 건물 단지를 알리는 주춧돌, 초석과 함께 3m 넘는 당간지주 3기, 대형 맷돌, 관솔불을 피워 불을 밝히는 정료대 5기, 괘불대 2기, 조각기법이 정교하고 문양이 화려한 6m 높이 승탑이 절터를 지킵니다.

세종 시절 무려 250명의 승려가 기거한 적도 있더니, 기도와 수행의 도량이라 해도 봄비는 장터같이 떠들썩했을 듯싶습니다.



백자동자상, 국립중앙박물관



청동금탁



회암사지 승탑

회암사의 번영은 왕실의 후원에 기반합니다. 회암사가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었던 고려시대를 지나 억불숭유 정책을 시행한 조선시대에도 변함 없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나옹의 제자인 무학을 왕사로 삼아 회암사에 주지로 머물게 하고 친견을 위해 몇 차례 행차하였으며, 왕위에서 물러난 뒤에는 회암사에서 수도생활을 했습니다. 태종의 아들, 효령대군은 회암사 중창에 관심이 각별했고, 중종 비 문정왕후는 보우에게 회암사를 대대적으로 중창케 하여 전국 제일의 사찰로 중흥시키려 했습니다. 기우제나 왕릉의 제사 같은 왕실행사가 치러진 회암사는 일종의 별궁과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회암사 가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궁궐에만 있는 월대가 있었고, 최고 수준의 온돌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큰스님의 거처인 방장을 공양왕이나 태조가 머물렀던 정청의 양쪽에 배치하는 형식은 개성 만월대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전체 규모나 가람의 조영 기법을 보면 왕실에 소속된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되었다고 짐작이 듭니다. 가람 복원모형과 영상은 회암사의 위용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2005년에는 사면이 돌벽이고 바닥은 박석이 깔린, 12개 기둥자리를 지닌 거대한 지하 석실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음식보관처나 창고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전통 뒷간의 저장 시설로 밝혀졌습니다. 흙덩이를 조사한 결과 기생충 흔적이 확인되었습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찰의 공동화장실, 해우소 중에는 최대 규모로 동시에 20여 명이 이용했으리라 추정합니다. 발굴된 뒷간 터를 주제로 2018년에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전 <대가람의 뒷간>을 열었습니다. 과학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수수께끼로 남았을 시설물을 통해 '버리고 비우는 일상'을 엿볼 수 있었던 흥미로운 전시였습니다.

10만여 점에 이르는 출토 유물들은 다종다양합니다. 상당수 유물들에 명문이 새겨 있어 후원자와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궁궐이나 왕실 관련 사찰에서만 쓰였다는 청기와, 용과 봉황무늬 기와, 용두, 토수, 잡상이 있습니다. 왕실전용 자기를 생산하는 관요의 도자기는 편으로 출토된 경우가 많지만 명성에 걸맞게 최고급의 품질로 평가됩니다.

니다. 인도의 옛 언어이자 불교 경전의 원어인 범자를 문양으로 한 기와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림인지 글자인지 알쏭달쏭해 보이는 범자가 당시 승려들에게 골치 아픈 제2외국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1565년 회암사에 봉안된 문정왕후가 발원한 불화들은 금화 50점, 채화 50점을 포함하여 총 400점인데 겨우 6점만 소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회암사지박물관에는 모사도가 있고 국내에 남은 유일한 진본 <약사삼존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2000년에는 발굴 이후 처음으로 폐사지의 이름이 적힌 청동유물이 나옵니다. 명문은 1394년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위해 회암사 보광명전 네 모서리 추녀 끝을 청동금탁으로 장식한다는 내용으로 태조, 신덕왕후 강씨, 세자방식의 후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익히 봐온 풍경보다 훨씬 큰 청동금탁이 회암사의 드높은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진품 청동금탁은 용, 봉황무늬 기와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실에서 전시중입니다.

절터에서 수습된 석조불상들은 모두 부서진 후 여기저기 흩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고의적인 파손은 유생들의 소행으로 본답니다. 대대적인 중수와 불교의 폐단, 승려들의 추문을 비난하는 유생들의 상소가 넘쳤다는 기록은 회암사의 순탄치 못한 마지막을 짐작케 합니다. 명종 때 문정왕후가 죽고 유생들이 요승으로 불렸던 보우가 유배된 이후 풍상 속으로 인멸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사 새옹지마', 우리네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회암사 옛터에 불탄 중이 있다." 1595년의 기록이 회암사의 끝도 첫 시작처럼 어느 때인지 모른다는 사실만을 알려줍니다. 복원과정을 거쳐도 온전치 못한 유물을 바라보며 유생들의 '반달리즘'을 생각해봅니다. 완형이었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 위에 현실정치에서 느껴지는 암담함이 겹쳐졌습니다.



범자문 수막새, 국립중앙박물관

회암사지에서 위쪽으로 능선을 타면 또 다른 회암사를 만나게 됩니다. 1821년 지공, 나옹, 무학의 승탑과 비를 중수하며 작은 절을 지었는데 이때 회암사의 이름을 계승하고, 1922년에는 세 화상의 진영을 모시고, 1977년에는 법당을 증건하여 나옹선사승탑과 석등 오늘에 이르렀다 합니다. 전각의 오른편 언덕에는 나옹선사승탑과 석등, 지공선사승탑과 석등, 무학대사탑과 쌍사자석등이 층층이 자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추억하리라 느껴집니다.

200여 년의 영화를 누리다 사라지고 400여 년이 지나 되돌아온 회암사. 부침이 심했던 사찰의 운명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오는 길, 나옹이 남긴 선시를 떠올렸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 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문미라 회원

세계화 시대의 한글

필자는 매운 음식은 한국인만 먹을 수 있는 줄 알았었다. 1970년대에 외국인이 고추를 먹고 매워서 찢찢매는 것을 보여 주면서 한국인은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고 자랑한 방송을 본 영향이었다. 직장에 들어가서 외국 출장길에 고추처럼 생긴 것을 가게에서 사다가 먹었다가 너무 매워 화들짝 뱉어 내고서야 외국인도 매운 음식을 먹음을 알았다. 그때는 생소해서 이름도 몰랐는데 아마 할라피노였던 듯하다. 1992년에 경험한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꽤 충격을 받았다. 세계는 넓는데 나는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반성도 하였다. 마지못해 떠난 외국 출장이었지만 기회가 되면 외국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이처럼 외국에 대한 한정된 지식에 근거하였기에 다시금 짚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세계 곳곳에 한국인이 나가 경험하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이 있으니 의문점을 쉽게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한국인들끼리 있을 때는 부풀리거나 대충 알고 말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세계화 시대, 다문화 시대가 된 세상에서 그럴 수는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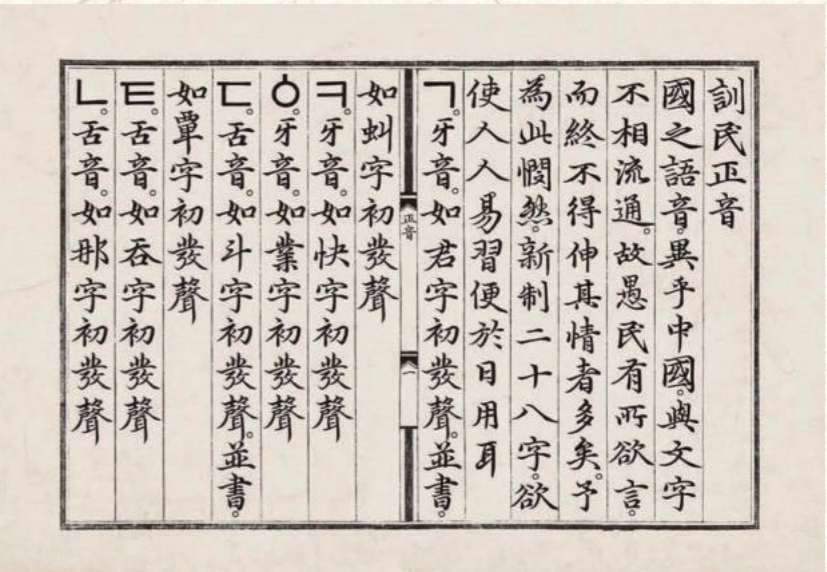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어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업에 들어오는 외국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전에는 거침없이 하던 말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 내용을 가르치기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더 찾아보기도 한다. 특히 한글에 관해 말할 때 더욱 조심스럽다. 한국인들이 한글에 대해 갖는 자부심이 크다 보니 부풀려지거나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고추의 경우처럼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제대로 아는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때 필자는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알려진 유일한 문자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태국 문자, 파스파 문자 등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알려진 문자가 한글 외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는다. 이들 문자는 주변 문자를 고쳐 만든 문자라는 점이 한글 창제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구분하면서까지 얘기하기는 번거롭다. 그 대안으로 문자를 기념하는 날이 있는 유일한 문자라고 생각해 왔었다. 최근에 불가리아에서 슬라브 문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알게 되

어 이 또한 아니구나 포기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한글에만 유일한 것 중의 하나는 문자 창제의 원리를 밝힌 책이 있다는 점이다.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이 그것이다. 자음자는 발음기관을 본떠 기본 5자를 만들고 모음자는 천지인 삼재를 본떠 기본 3자를 만들었다는 한글 창제의 원리는 이 책에만 나온다. 한글 창제 원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 책이 없었다면 한글이 우수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말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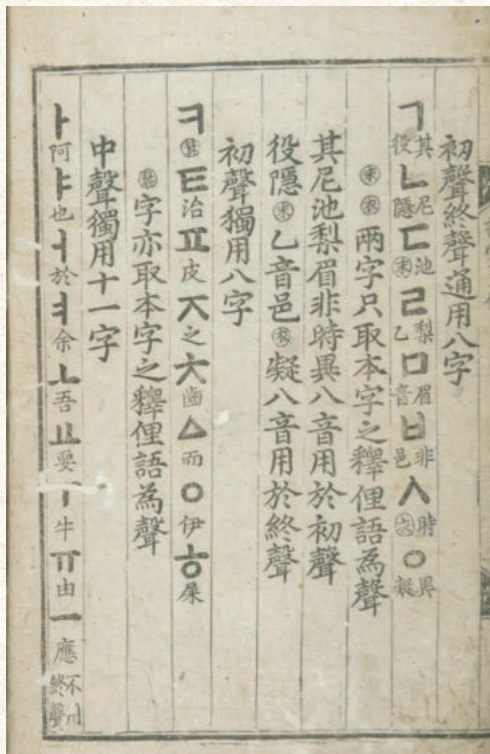
문자 창제 원리를 기록한 유일한 책이어서 『훈민정음(해례본)』은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이 잘못 알려져 한글이 우수하여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하였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 또한 그렇게 알았다가 나중에야 아님을 알았는데 아직도 한글을 자랑할 때 종종 언급되는 잘못 중의 하나이다. 예전에 비해 말하기 조심스러워진 것들도 있다. 그중의

하나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말이다. 한글이 우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문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만이 아니어서 비교 기준에 따라 우수하다는 평가는 달라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또한 한글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말은 다른 문자들을 폄하하는 것일 수 있어 특히 외국인들 앞에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

주변의 문자를 모방하지 않고 독창적인 창제 원리로 만든 문자, 소리와 글자가 관련이 있는 유일한 문자 등 한글의 우수성은 그동안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자론의 관점에서 문자들을 비교할 때 한글은 이처럼 다른 문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문자론의 관점에서는”라는 제한 표현을 앞에 달고 한글이 우수하다고 말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문자의 중요한 기능으로 소리를 적는 수단을 들 수 있다. 그 관점에서라면 문자의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어가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훈민정음(해례본)』 정본(안), 문화재청 보고서



『훈민정음』- ㄱ, ㄴ, ㅁ의 한자표기

중국에서는 문자 발달 단계로 보면 최초 단계라 할 표의 문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 방언끼리 전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커서 표음 문자로 적는다면 방언 간의 소통이 불가능하기에 표의 문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일본에서는 한자로부터 발달한 글자가 가나 문자로 정착되었는데 일본어를 적는 데 충분하여 표의 문자 다음 단계라 할 음절 문자에서 그쳤다.

우리도 일본처럼 중국의 한자를 받아들여 우리말을 적으려는 시도를 한글 창제 전에 했었다. 한자로 적었지만 신라의 언어로 읽어야 하는 신라 향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과 같은 경우였다. 그런데 우리말은 일본어에 비해 음절 구조가 복잡하여 글자가 많이 필요하여 한자로 표기하자면 번거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 불편함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다.

한글 자음자 14자의 명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글 자음자 명칭을 정하는 기준은 ‘니은, 리을, 미음’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앞 글자 초성과 뒤 글자 ‘으’ 밑의 종성 자리에 해당 자모를 넣는 것이다. 여기에 예외가 셋이 있으니 ‘기역, 디귚, 시읏’이다. ㄱ, ㄷ은 원칙대로 ‘키읔, 티읏’이다. 이 세 개, 그중에서도 뒤 글자만 예외인 이유는 조선 중종 때 학자인 최세진 저 『훈몽자회』에 실린 한자 표기 때문이다. ‘기역’은 비슷한 발음인 ‘역(役)’으로 적었고 ‘디귚’, ‘시읏’은 각각 ‘末’과 ‘衣’로 적고 뜻으로 읽으라고 했다. 즉, ‘귚’(끝의 옛말), ‘읏’이라고 읽어야 한다.(그림 참조) ‘으, 은, 윗’으로 적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달리 적은 이유는 한자에는 이 음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슷한 발음의 글자, 뜻으로 읽는 글자를 동원하여 적도록 한 것이다. 글자는 많아도 음의 개수는 적은 한자로는 음이 다양한 우리말을 적기가 불편하였다. 한글 맞춤법을 정할 때 이 3개의 예외를 존중하여 그대로 채택하였기에 자음자 명칭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전통을 지키려면 때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향가의 번거로운 표기법이 쉬울 수는 없어 새로운 문자로 정착하지 못했다. 한국어의 특성으로 일본어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르는 행운이 겹치면서 우리말을 적는 데 적합하면서 뛰어난 새로운 문자, 한글이 나오게 되었다. 음절 구조가 복잡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한자로부터 발달한 문자를 지금까지 사용했을 수도 있다. 불편이 새로운 문화 창조로 귀결된 것이다.

흔히 한글은 배우기 쉽다고 하는데 이 표현도 조심스럽다. 쉽고 어렵고는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에 실린 정인지 서문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니 꽤 오래된 믿음이다. 한자와



한글 목활자

비교하면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문자들이 있다. 필자가 이들 문자를 모두 배워 보지 않았으니 한글과 비교하면 어떻게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표음 문자에 속하는 문자들은 글자 수가 많지 않으니 한글처럼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잘 아는 영문자와 비교해도 그렇다. 영어 배울 때 대문자, 소문자를 익히는 시간과 한글의 자모를 익히는 시간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날까?

영문자는 배우기 어렵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영문자를 배워 철자법에 맞게 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는 한글도 마찬가지이다. 한글 맞춤법에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정한 이후 맞춤법에 맞춰 제대로 쓰는 일은 훨씬 어려운 일이 되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받아쓰기 시간이 있는 이유이다.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면서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지나가듯 한 적이 있다. 사석에서 이유를 물으니 일본어학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본어학과는 글자를 가르치고 곧바로 언어 교육으로 넘어가는데 한국

어학과는 글자를 가르치고 다시 글자를 조합하는 것을 가르쳐야 해서 글자 가르치는 시간이 더 걸린다.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한글의 특성으로 생기는 문제이다. 이것을 모아쓰기라 하는데 모아쓰기는 한때 한글의 단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가 많지 않았을 때 이런저런 믿음이나 지식이 만들어졌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그대로 지닐 수는 없다. 전에 국내 관광지 한 곳을 갔다가 거기의 시설물이 세계 최고라고 소개한 안내문을 본 적이 있다. 불과 그 얼마 전에 필자는 외국에서 그 시설물과 같은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훨씬 정교하고 큰 시설물을 보고 왔기에 그 안내문에 실소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화, 다문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니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도 더 해야 할 것이다.

조남호 명지대학교 교수





그리스 극장, 타오르미나

시칠리아 지금 여기 그리움의 맨 처음



에트나 화산이 폭발했다. 하늘이 깊게 내려앉은 E45 도로 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회색 구름 다발을 만났다. 타오르산 절벽에 자리한 타오르미나에서 알게 된 구름의 민낯은 에트나에서 터져 나오는 화산 연기구름이었다. 최근 몇 년간 해마다 분출한다는 화산재가 눈앞에서 하늘 높이 솟은 걸 보며 넋을 잃었다.

1693년 1월 11일 밤 에트나 화산이 분출을 시작했다. 그 여파로 대지진이 발생해 시칠리아와 몰타는 물론 남부 이탈리아까지 45개의 도시가 파괴되었다. 에트나와 1시간 거리인 카타니아는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하고 남쪽의 노토, 모디카, 라구사는 도시가 붕괴되어 18세기 철저한 도시 계획에 의해 바로크 건축물로 재탄생됐다. 이 엄청난 사건이 내게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으나 보다. 다음날 에트나를 볼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할 때까지 화산 분출과 시뻘건 용암을 바라보며 크리스마스이브 선물인 줄 알았다. 차 옆을 스치는 화산재 더미들이 안개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빛속을 뚫고 에트나 1950미터 리푸지오 사피엔자에 오를 때까지, 열악한 날씨에도 볼 수 있다는 근처 낮은 분화구를 상상하며 제주 오름을 떠올려 보곤 했다. 전면 통제, 최악의 시나리오, 크리스마스의 재앙이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향해 뻗어 있는 삼각형의 섬, 시칠리아는 제주도의 14배이고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다. 풍화가 오래된 바위산과 널찍하게 깔린 화려한 해안선이 눈이 시리도록 푸른 지중해와 만나 도발적인 아름다움을 뽐낸다. 사이렌의 신화를 만들어낸 메시나 해협엔 거대한 구름 군단이 몰려다니고 살아 숨 쉬는 풍경은 보잘것없는 나를 뜨겁게 환기시켰다. 아름다운 것은 오래 버려두면 안 된다는 인간의 마음이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 강렬한 태양까지 갖춘 이곳을 탐했나 보다. 기원전 8세기 페니키아와 그리스로부터 로마, 아랍, 노르만, 프랑스, 스페인, 지금의 이탈리아까지 지중해를 장악하기 위해 시칠리아를 정복했다.

노르만 왕조의 수도였던 팔레르모는 동서양의 복합적인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가득했다. 노르만 궁전의 팔라티나 예배당은 성당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 이면서 벽면은 화려한 모자이크의 비잔틴 양식이고 신

몬레알레 대성당



에리체



베네딕투스 수도원
기둥 주두

도석의 천장은 별집 형태의 무카르나스 아랍 양식이다. 아랍인들의 요새로 만든 궁전은 아름다운 그림책을 보듯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지중해 문명을 응축한 최고봉은 왕의 휴양지였던 팔레르모 남서쪽 산비탈의 작은 마을 몬레알레 대성당이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중세 유럽, 시칠리아의 노르만 왕조는 종교적 관용을 위대한 건축물로 보여주었다. 전체 골격은 노르만 양식이지만 그리스 양식의 기둥과 로마의 아치, 아랍 양식의 독특한 천장과 황금빛 모자이크 벽면, 그 중심에 전능하고 온화해 보이는 그리스도, 특히 모자이크에는 아랍 문양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절묘한 조화와 웅장함은 성당을 메운 눈동자들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가파른 돌층계를 오르면 지붕 모서리 아래로 베네딕투스 수도원 안뜰이 보였다. 정사각형 둘레를 따라 한 쌍의 기둥이 아랍풍의 아치를 받치며 돌고 있는 회랑, 올리브 나무와 야자나무, 파티오와 아랍식 분수까지 알람브라 궁전을 떠오르게 했다. 시칠리아 왕조의 보물은 공존의 역사를 선택한



콘코르디아 신전과 초기 기독교 무덤, 아그리젠토



그리스 극장, 시라쿠사

루제로 2세와 설득과 협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은 대관식을 올렸던 팔레르모 대성당에 석관이 안치되었고 팔레르모는 최고의 전성기로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로마시대부터 소금을 공급했던 트라파니를 굽어보는 에릭스산 위에 새 둥지처럼 앉은 마을이 있다. 절벽의 아찔한 커브길이 풍경을 끌껴 삼키면 텅 빈 허공 위로 숨막히는 하늘이 보였다. 하늘에 떠 있는 중세도시 바로 에리체이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허물어진 성채, 바위에 심은 것 같은 집들, 성당과 수도원, 절벽을 돌아가는 탐들이 중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겨울이면 북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무시무시한 미스트랄은 지중해 연안 집들에 덧창을 달게 했다. 에리체는 짧은 순간 시야를 가려버리는 축축한 안개까지 더해 덧창이 더 완고해 보였다. 바이킹의 칼바람과 그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에리체는 비너스의 키스라 불리는 이 안개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는 진귀한 경험까지 선물했다.

시칠리아에서 가장 융성했던 그리스를 지금도 만날 수 있는 곳은 아그리젠토와 타오르미나, 시라쿠사이다. 시

칠리아의 대표 이미지인 아그리젠토 신전들의 계곡은 그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식상할 줄 알았다. 2500년이란 시간의 무게를 버티고 선 도리아식 기둥들과 터만 남은 신전들, 무너져 내린 돌무덤, 그 안에 완벽에 가깝게 살아 있는 콘코르디아 신전은 감동이었다. 세로의 흠이 경쾌해 보이는 엔타시스 기둥의 눈부시게 흰 처음을 상상해본다. 신전의 성역을 보호했던 성벽에는 위가 아치 모양으로 파인 '로쿨로'라는 네모 구멍들이 있다. 초기 기독교 시절 뒷자리조차 마련할 처지가 못 되는 이들을 위한 무덤이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신전과 마지막으로 그곳에 작은 마침표를 찍는 인간의 공존이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곳이었다.

바다와 사랑에 빠진 저주 때문에 메두사를 보는 이들은 돌로 변했다. 그 돌들로 만들어진 타오르미나 그리스 극장 계단에 앉아 무대 너머 이마가 붉어지는 에트나와 눈이 시린 이오니아 해를 바라보면, 삶의 기쁨과 이야기의 감동을 느낄 줄 알았던 기원전 사람들이 어른거렸다. 천혜의 항구와 가장 아름다운 광장, 아르키메데스의 고향 오르티자 섬과 그리스, 로마 유적을 간직한 시라쿠사는 플라톤이 이상 국가를 꿈꿨던 곳이다. 지금도 여름이면 그리스 비극을 공연하는 16,000명의 관객을 수용하던 큰 규모의 그리스 극장엔 급수시설을 담당했던 요정

의 동굴이라 불리는 인공의 샘이 흐르고, 시라쿠사 영웅들의 그림이나 명판을 보관하는 벽감이 눈에 띈다.

팔레르모 팔라초 아바텔리스는 시칠리아 최고의 화가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수태고지>와 작자 미상의 <죽음의 승리> 등 뛰어난 예술을 만나는 장소였다. 어리둥절할 만큼 작은 <수태고지>는 신의 계시를 알리는 가브리엘 대천사도 보이지 않고 신비스러운 여인의 초상화 같았다. 소중한 작품을 위해 얇은 나무 칸막이를 만들고 그 벽 속에 끼워 사망에서 볼 수 있게 한 배려가 놀라웠다. 1562년경 브뤼겔도 같은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 <죽음의 승리>의 배경엔 유럽을 휩쓴 흑사병과 죽음의 공포가 있었다. 1347년 시칠리아에 닥친 페스트라는 한 세기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죽음의 승리로 담아냈다.

사실 처음 본 번영의 상징 팔레르모의 외양은 유명 성당 앞에서 유명처럼 비틀대는 노숙인과 인적 없이 섬뜩한

빈민가와 오래된 궁전 뒷골목에 야릇한 눈빛으로 기대선 흑인들이었다. 저녁 조명과 화려함 이면의 숨김없는 모습이 덜컥 두려웠다. 여러 날 시칠리아의 요모조모와 유쾌하지만 뭔가 몽푼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무너져 내린 채석장에서 고통에 시달리던 포로들과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는 '디오니시오의 귀'를 상상했다. 문득 에나 출신 노예 스파르타쿠스의 간절함이 떠올랐다. 어쩌면 닳선 이들로 넘치는 일상이 고단했던 건 그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낯설고 무례한 이방인들을 견뎌야 했던 그 옛날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마리오네트 인형 극장엔 이야기와 인정이 가득하고 작은 도시 곳곳에 따뜻한 서점이 자리하는 시칠리아. 시라쿠사 아테네 신전의 거대한 기둥을 품은 두오모 성당 계단에 앉아 멈춰버린 시간을 바라보면, 굴곡진 역사와 다양한 문화로 나를 열어 준 시칠리아가 흘러간다. 나도 가벼워진다. 🐼

정은정 회원



수태고지(좌)
죽음의 승리(우),
팔레르모 미술관





함께 가는 길동무



사진을 쳐다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분명한 현실을. 옅은 웃음을 띤 낯익은 얼굴이 생소하기만 했다. 울음이 목을 넘어 왈각 쏟아질 것 같은데 눈물 한 방울 없이 멍하니 서 있거나 자신이 낯설었다. 그 순간 가슴은 텅 비어 그저 멍멍할 뿐이었다. 바로 앞에서 마주보고 있건만 저쪽과 이쪽이 절대 다가설 수 없는 절대적인 거리감을 느끼면서.

죽음. 객관적인 의미로만 이해했던 단어가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단절감으로 모든 것을 정지시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긴 시간 동안 쌓여 있던 원망도 풀지 못했고 언젠가 꼭 하려던 말도 못 했다. 그냥 살아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안하고 있었는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된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함께 했던 추억과 회한이 한데 뒤섞여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슬픔이 모든 감정을 누른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전과 같이 흐르고 일상 또한 전과 똑같이 계속된다. 불쑥불쑥 그 사진의 웃음 띤 눈빛에 체한 것처럼 가슴이 눌린다. 가지 말라고, 혼자 두고 가지 말라고, 무섭다며 흔들리는 눈빛을 그곳에 두고 온 것 같아서.



꽃상여 부분, 국립민속박물관



재인 꼭두, 꼭두박물관

어떤 모습으로 어디쯤 어떻게 가고 계실까.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죽음 후를 생각해본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분명한 것이 없다. 안타까움과 함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길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길동무와 함께 꽃상여에 태워 보내 드린다.

기억 저편에 있던 구슬픈 상여소리가 멀리서 들리며 마을 어귀를 떠나던 상여가 떠오른다. 어찌나 곱고 화려하게 치장했는지 새색시를 태우고 가는 꽃가마 같았다. 집 떠나기 서러운 혼을 대신하는 요령잡이의 처량한 노랫가락과는 달리 붉은색과 노란색, 파란색으로 꾸며진 상여가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다. 험상궂은 얼굴의 방상시가 장애물을 걷어 내려는 듯 기다란 창을 들고 길을 트고 상여가 그 뒤를 따랐다. 상여에는 어둠을 밝혀 줄 청사초롱, 한껏 날개를 펼친 봉황, 망자를 태우고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용, 제각기 다른 모습의 나무 인형 꼭두가 장식되어 있었다. 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가족과 이웃들은 낯선 길에 대한 걱정과 불안, 좋은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나무를 깎고 다듬어 꼭두를 만들었다. 두렵고 외로운 길을 홀로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길동무를 생각해냈던 것이다. 처음 가는 낯선 길을 안내해줄 꼭두,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꼭두, 힘들고 지칠 때 온갖 시중을 들어줄 꼭두,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줄 꼭두를 함께 동행하게 했다.

칠혹 같은 어둠을 뚫고 길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은 꼭두는 호랑이나 말을 타고 있으며, 잡된 귀신이나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꼭두는 어떤 장애물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대부분 험악한 표정을 짓고 창이나 칼 등의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무관의 모습을 하다가 대한제국 시대와 일제강점기에는 경찰, 그리고 해방 후에는 총을 든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치고 힘들 때 생사와 같이 시중을 들어줄 꼭두는 언제든지 불편하지 않도록 보살피려는 듯 다소곳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동자나 동녀, 여인의

“사각사각……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각사각……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각사각……
좋은 곳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안내 꼭두, 꼭두박물관

모습으로 표현된다. 낯선 길을 가는 불안과 이별의 슬픔을 달래줄 꼭두는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거나 거꾸로 곤두서서 묘기를 부리는 재인의 모습으로 망자의 마음을 위로한다. 이처럼 제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꼭두는 다양한 표정과 독특한 동작을 하고 있다. 꼭두는 솜씨 좋은 장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만들었기에 조각 솜씨가 그다지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충 만든 듯 두루뭉술하고 투박한 모양이지만 떠나 보내는 이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서툰 솜씨가 오히려 다정다감한 정으로 다가온다.

익살스럽고 소박한 표정의 꼭두 얼굴에 친근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진다. 무뚝뚝한 얼굴로 힘깨나 쓰던 순길이 삼촌, 따뜻한 국을 끓여 어르신들을 대접하며



시중 꼭두, 꼭두박물관

시중들던 아주머님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우스꽝스런 몸짓으로 한바탕 웃게 해주던 박씨 아저씨의 모습을 본다. 머리를 양쪽으로 틀어 올린 장난기 가득한 표정의 꼭두는 마을 뒤편 상여를 보관하던 곳간을 기웃거리던 나와 동무들의 모습이다.

어쩌면 정을 나누던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가줄 수 없는 육신을 대신해 자신들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꼭두에 새겼는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망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동무가 되고자 했던 건 아닌지.

세상이 많이 바뀌어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가는 장례 행렬은 빛 바랜 흑백 사진처럼 과거의 풍습으로 기억된 지 오래다. 나 역시 시대를 좇아 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간편하게 장례를 마쳤다. 무슨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의례적이 아니었다. 정성을 다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못내 마음이 무겁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꼭꼭 눌러 가슴으로 꼭두를 새긴다. 🐼

계유에 회원



재인 꼭두, 꼭두박물관

유목 : 자유인의 業



건조한 대초원에도 봄은 잦은 봄비와 함께 찾아옵니다. 카자흐스탄의 스텝과 텐산산맥 발치의 구릉지대에는 땅속에서 긴 겨울을 버틴 수많은 야생 튤립 구근이 꽃을 피울 채비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랑 받는 튤립의 원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귀한 봄비가 땅을 적시면 이들은 부지런히 지표 위로 꽃대를 올리고 4월의 어느 날 일제히 붉은 꽃잎을 내밀어 초지와 황야를 수놓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진 후 10~15년이 지나면 처음으로 개화를 하고, 그 후로는 개체에 따라 40년 이상 매년 꽃을 피운다지요. 그래서 야생 튤립의 수명은 자그마치 60~70년으로 사람과 비슷합니다. 척박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하여 까마득한 옛날부터 자생해온 이 야생화들은 그 자체로 자유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꽃들을 보면 자연스레 이들과 함께 그곳에 살았던 유목민들이 떠오릅니다.

일곱 개의 강을 의미하는 이곳 제티수 지역은 텐산산맥의 만년설이 녹아내려 1,000여 개의 강과 호수를 이루고 산과 사막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중앙유라시아 내륙을 흐르는 수많은 강은 그 수원



기마인 장식 원형 향로(복제품), 카자흐스탄국립박물관



이 자연 강우가 아니라 험준한 산맥과 고원의 빙하이며, 바다로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내려가 오아시스 도시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고대로부터 농경민이 정주하고 유목민이 찾아와 교역하는 곳이었으며, 주민들은 농사와 목축을 겸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

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 도시들은 그 수도, 반경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더 넓은 초원에서 발흥한 유목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는 종속되고, 경제·문화적으로는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의 고대인으로서 젊은 나라 카자흐스탄의 상징이 된 젊은이가 바로 이식 쿠르간에 누워 2,500여 년을 안식하던 황금인간입니다. 겨우 15~18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전쟁에서 화살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168cm 정도로 추정되는데 조선시대 남성의 평균 신장이 161cm 정도였을

을 감안하면 장신입니다. 4000여 점의 정교한 황금 장신구로 전신을 감싼 모습은 현대인의 눈에도 경이롭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황금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해서인지 이 찬란한 재현품이 아무리 새것처럼 보여도 도무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초원 세계를 지배했던 사카인을 대표하는데, 그리스인에게는 스키타이, 중국인들에게는 색(塞)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기마술과 전투력이 어찌나 뛰어났던지 그리스인들에게는 반인반마인 켄타우로스라고 인식될 정도였답니다. 이들의 흔적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반란을 평정하고 기원전 519년에 세운 비시톤 비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민족들의 수장 중에서 마지막에 서 있는 '사카 티그라하우다(끝이 뾰족한 모자를 쓴 사카)'는 특유의 높은 모자 덕분에 더 돋보입니다.

헤로도토스의 말처럼 '도시도 성채도 짓지 않고' 목축을 위해 늘 이동하는 와중에도 이들은 초원의 곳곳에 거대한 적석목곽무덤, 즉 쿠르간을 남겼습니다. 이들에게 조상의 무덤이란 하영지와 동영지 사이를 이동하는 중간에 일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행하며 결속을 다지는 장소였습니다. 후대인들에게는 이들이 남겨준 희소한 타임캡슐이 바로 피장자를 위해 지은 무덤입니다.

사실 우리는 중앙유라시아를, 그 양단에서 출발하여 이곳을 '지나

다닌'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전하는 정주민들의 기록에 판단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고고학 발굴 성과를 통해 그곳에 '살았던' 주인공들에 관해 우리가 직접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 도시들 인근의 '교착형 초원'에서 살았던 유목민들이 어떻게 정주하고픈 유혹을 이기고 유목을 계속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걸 보면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어쩔 수 없이 정주민의 눈입니다. "유목민의 삶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여기서 특별한 편안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19세기 탐험가 프르제발스키의 말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13세기 초 북경에서 몽골을 지나고, 시베리아, 알타이, 텐산산맥을 거쳐 사마르칸트까지 여행한 도교 승려 구처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산과 강은 끝이 없이 이어진다. ... 왜 조물주는 세상을 창조하면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에게 말과 소를 키우라고 명령했을까? 그들은 태고 이래로 짐승의 피를 마시고 말 안장 위에 탄다. 그리고 높은 모자를 쓰고 ... 수백 년 동안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살아왔다."

유목민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수십 세기 동안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땅이 농사가 불가능해서라고 말하기엔 불충분해 보입니다. 1930년대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를 당했던 고려인들은 갈대밭을 개간하여 가져간 씨앗을 뿌리고 벼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규정했습니다. 한나라 때 흉노에게 포로로 끌려가거나 자발적으로 이주한 한족들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답니다. 특히나 중앙유라시아의 유목민들이라면 정주민의 삶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오아시스 도시로 펠트와 모피를 가져가서 곡물과 바꾸오던 그들은 아마 복잡한 바자르를 벗어나고 도시를 벗어나 자마자 신나게 말을 달려 호젓한 자기 유르트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더 좋았던가 봅니다. 초원에 도착해서도 도저히 유목민으로 변신할 수 없었던 고려인들이 악착같이 농업을 일군 것처럼, 유목민들은 탁 트인 초원을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는 말을 타고 자유롭게 달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목이야말로 자신들이 영위할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르제발스키의 '특별한 편안함'이란 사실 매우 주관적인 표현이고, 행복의 조건은 더군다나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



비시톤 비문



황금인간(복제품), 카자흐스탄국립박물관



황문영 회원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 | | |
|-----------------------|-----|-------------------|
|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 테마전 | 02. 28. ~ 09. 15. |
| 신라를 다시 보다 | 특별전 | 04. 01. ~ 06. 10. |
| 전환의 시대, 근대 서화의 여정 | 기획전 | 04. 16. ~ 06. 02. |
| 공주 마곡사 괘불 | 테마전 | 04. 23. ~ 10. 20. |
|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가교, 에트루리아 | 기획전 | 07. 08. ~ 10. 27. |
| 화가의 시선 -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 특별전 | 07. 22. ~ 09. 22. |
| 세한도 | 특별전 | 10. 07. ~ 11. 24. |
| 문명의 얼굴들 | 테마전 | 10. 21. ~ 03. 01. |
| 가야대전 | 기획전 | 12. 02. ~ 03. 01. |
| 신라와 페르시아 | 특별전 | 12. 23. ~ 04. 05. |

* 위의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 구석기실

나로 말하자면

자, 역사적인 현장으로 오세요.
인류가 두 발로 걷게 되자
100만 년 이상 가는 슈퍼 울트라 히트 상품을
온 세상을 향해 내놓습니다.

찢고, 자르고, 찌고, 파내는
모든 작업에 만능입니다.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구석기 최고의 발명품,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회장을 거쳐 2017년 11월 申聖秀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申聖秀
 副 會 長 | 尹在倫 朴殷寬
 理 事 | 郭東錫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朴禎原
 禹燦奎 尹碩敏 李玉卿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裴基同
 監 事 | 金教台 李教禡
 事 務 局 長 | 李在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주작회원
 金正泰 하나금융그룹
 尹光宇 회원

천마회원
 南秀淨 (주)썬앳푸드 사장
 朴銀寬 (주)시몬느 회장
 孫昌根 소장가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申憲澈 SK에너지
 尹碩敏 태영건설 부회장
 尹章燮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尹在倫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鄭溶鎭 신세계그룹 부회장
 趙顯相 효성 총괄사장
 千信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許榕秀 GS에너지 사장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洪政旭 헤럴드·올가니카 회장

금관회원
 姜德壽 (주)STX
 庚圓 극락사 주지
 權俊一, 具在善 Actium Group 부회장
 金教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金錫洙 동서식품(주) 회장
 金承謙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金信韓 대성 사장
 金芝延 (주)컨셉 대표
 都炯泰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朴炳燁 팬택&큐리텔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朴禎原 두산메카텍(주) 부회장
 裴東眩 창성그룹 부회장
 宋英淑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李圭植 경신금속(주) 대표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李玉卿 서울옥션 부회장
 李周成 세아제강 부사장
 李旻炅 MashupAngels 대표
 全裁範 금강공업(주) 사장
 鄭明勳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鄭在鳳 (주)한섬
 崔杜準 (주)동남유화 회장
 최철원 MIGHT&MAIN(주) 사장
 許允秀 (주)ALTO·(주)ALTEK 사장
 許允烘 GS건설 부사장

은관회원
 姜院基 오리온 대표
 金寧明 (주)예을 이사장

金英姬 회원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金鐘漢 (주)중합전기 대표
 柳芳熙 (주)풍산주택 회장
 柳智勳 (주)한탑 사장
 朴善正 대선제분(주) 부사장
 朴英柱 아성다이소 부사장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成來恩 (주)영일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成弼鎬 광성기업(주) 대표
 宋秉峻 (주)게임빌·(주)컴투스 대표이사
 宋 哲 성문출판사 대표
 辛炳讚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梁洪碩 대신증권(주) 사장
 禹燦奎 학교재 대표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尹賢慶 동화약품 상무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사장
 李廷龍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林鍾勳 한미메디케어 대표이사
 張善霞 (주)교일 상무
 張仁宇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曹榮峻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崔雄善 (주)인팩 대표이사
 崔正勳 (주)이도 대표이사
 韓惠舟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청자회원

姜承模 KP그룹 부회장
 高基瑛 (주)금비 부회장
 具東輝 (주)LS 상무
 具本權 LS-Nikko동제련(주) 부장
 具本商 LIG넥스원(주) 부회장
 具本赫 LS-Nikko동제련(주) 부사장
 具瑗姬 한성플랜지 이사
 鞠賢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權志德 아이에스동서 전무이사
 權宅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金建昊 삼양사 팀장
 金京姬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金寧慈 (주)예을 명예이사장
 金大煥 (주)슈퍼리어·슈퍼리어홀딩스(주) 사장
 金東官 한화 큐셀 전무
 金東準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金旼洙 삼익악기 사장
 金相潤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性完 스무디킹 Global CEO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金榮秀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金裕錫 (주)행남 대표이사
 金侖壽 지리산 문화관 관장
 金恩惠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金益煥 한세실업(주) 대표
 金仁順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金載烈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金知爰 한세메케이 주식회사 전무
 金正宙 태아산업(주) 부사장
 金宗學 (주)NXG 대표이사
 金兌炫 서양화가
 金澤辰 성신양회(주) 부회장
 金賢鎰 (주)엔씨소프트 대표
 南兌勳 히든베이호텔 사장
 柳重熙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文윤희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閔俊棋 아주 호텔 앤 리조트 대표이사
 朴璟鎭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朴仙卿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朴宣注 용인대학교 부총장
 朴世昌 영은미술관 관장
 朴漢正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V&S자산운용 부장

朴載相 성곡미술관 이사
 朴載蓮 (주)신원 부회장
 朴廷彬 재미교포
 朴正遠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朴俊泳 TV조선 상무
 朴海春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方正梧 (주)동성코페레이션 전무
 裴允植 회원
 白晋宇 대한광통신 사장
 徐東姪 (주)경동홀딩스 상무
 薛允碩 아름지기 이사장
 孫元洛 법무법인 세종 대표
 申硯均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辛永茂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愼昌宰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沈宗玄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楊仁集 골드만삭스 상무
 楊汰會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梁湖善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吳勝敏 인성산업(주) 전무
 吳治勳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柳東鉉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俞承熹 BlueRun Ventures 대표
 柳英芝 호림박물관 이사
 尹 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尹普鉉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尹勝鉉 삼일회계법인 전무
 尹楨善 (주)코오롱 상무
 李甲宰 열화당 대표
 李圭鎬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李起雄 삼표산업
 李圭鎬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萬圭 목금토갤러리 관장
 李美淑 (주)코오롱 상무
 李常宰 열화당 대표
 李善宰 (주)에이티넵파트너스 대표이사
 李善眞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秀卿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承勇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英純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鈴子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容濤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宇成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宇鉉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雲卿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胤基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仁洙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宰旭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柱翰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濬宇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芝衡 왕원지방방법원진주지원 판사
 李哲雨 롯데쇼핑 총괄사장
 李學俊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李海珍 NAVER 이사회 의장
 張同鎭 (주)파워맥스 사장
 張承準 매일경제 사장
 洋賢財團 (주)한길봉사회 이사장
 田永采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田潤洙 블룸앤코 대표
 丁恩美 현대자동차 부회장
 鄭義宣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현대무비스 전무
 鄭志伊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경동소제 대표이사
 曹榮美 (주)가온소사이터티 대표
 曹在顯 하나유비에스 대표
 趙希卿 천일식품(주) 대표
 陳在旭 (주)카카오 CFO
 千碩圭 회원
 千碩圭 SK(주) 부회장
 崔善默 회원
 崔世勳 회원·자원봉사
 崔仁善 SK(주) 부회장
 崔再源 회원
 崔昌和, 鄭惠淑 회원·자원봉사
 崔惠玉 한국도로공사
 崔薰鶴 韓碩炫 노루홀딩스 회장
 韓碩炫 (주)오투기 회장
 咸泳俊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許正錫 SPC(주) 부사장
 許辰秀 (주)화승R&A 부회장
 玄明官 호성흥업 회장
 玄智皓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胡鍾一 남양유업(주) 부장
 胡昌成 고려제강 상무
 洪範碩 고려상사(주) 부회장
 洪範杓 회원
 洪誠杓 (주)BGF리테일 부사장
 洪元福, 金根鎬 중앙미디어네트웍 대표이사 사장
 洪正道 중앙홀딩스 / JTBC 팀장
 洪禎寅 마리오아울렛 이사
 洪進基 남양유업(주) 상무
 洪振碩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黃仁奎 KKR Asia Limited 대표
 Joseph Bae TCK Investments 상무
 Mark Tetto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